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서동희¹, 전희정^{2*}

¹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Dong-Hee Seo¹, Hee-Jeong Jeon^{2*}

¹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kottongnae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kottongna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대학생 3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 1유형은 '적극적 수용형'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이며, 2유형은 '자국민 우선형'으로 이주민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3유형은 '합리적 수용형'으로 합리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며, 4유형은 '제한적 수용형'으로 이주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사회의 구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사회, 다문화 인식, 대학생, 주관성, Q방법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ereotyp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types. To this end, the Q methodology was utilized and 31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ere four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multicultural societies. Type 1 was an 'aggressive acceptance' which aggressively and positively embraces multicultures. Type 2 was a 'its national first priority', which put the Korean first before immigrants. Type 3 was 'reasonable acceptance' that accepts multiculturalism within the reasonable and legal bounds. Type 4 was 'limited permission' which agrees to accept immigrants restri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ought-provoking ways needed to realize multicultural societies were explored.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Perception,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ity, Q-methodology

1. 서론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세계화는 지식, 자본, 문화 등의 자유로운 공간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우리사회에 유입되었다. 단일민족임을 자

랑으로 내세웠던 오랜 세월의 자부심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단일민족국가라는 강한 신념이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한국식으로 동화되어야 함을 강요하며,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일종의 차별적 배제모형과 동화모형에 적용시켜 이민자들을 주변화시키

*Corresponding Author : Hee-Jeong Jeon(mynazareth@kkot.ac.kr)

Received September 30,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2018년부터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1]에서는 비전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설정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부처 간 다문화 이해교육 협업체계를 강조하며, 미디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겠다는 정책과제는 과거의 미온적이었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사회각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길은 아직은 멀고 험해 보인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나 다문화 사회의 전개에 대한 태도 등은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된 정보를 통해 생성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복지국가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매우 복잡하게 얽혀 역차별의 논리 속에서 배타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2].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동등한 인격적 대우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짚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류를 형성할 대학생들의 다문화적 인식을 유형화하여, 특징과 유형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존의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향후 이주민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논의

2.1 다문화 인식의 중요성

다문화의 인식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on & Park(2009)의 연구[3]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을 기초로 한 사회적 다양성과 다문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 사회에 부정적이고 이주자집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주자집단의 추방을 원하는 등

극단적 정책방향을 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세대를 이끌고 나갈 20대의 지식층인 대학생들이 현재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의 통합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지속되고 있는 이민논쟁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된다. 외국인 이민자를 위협 혹은 부담으로 인식하는 입장과 이민자를 이익 혹은 자원으로 인식하는 입장, 그리고 ‘문화주의 vs. 복지국가’의 논쟁이 있다. 특히 현재 서구사회는 ‘문화주의 vs. 복지국가’의 논쟁이 주를 이루는데 다문화주의 이슈가 재분배 이슈를 약화시킨다는 점, 인종적 차이가 공동의식과 연대감을 약화시킨다는 점,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차별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을 최소화시켰다는 점 등이 주요 이슈이다.

한편, 다문화와 관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쟁에는 ‘복지논쟁’과 복잡하게 뒤얽혀 상당부분 ‘다문화’와 ‘역차별’의 양상이 포함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실업문제, 자국민의 선별적 복지와 이민자의 보편적 복지 등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 내 반이민정서가 퍼져나가게 된 부분이 있다[2].

반면,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는 우리국민과 똑같은 ‘한국 국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현재는 주변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주장이 있다. ‘평등한 대우’가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5]. 이 역시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2].

2.2 다문화 인식 연구

다문화인식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의 대상은 일반청년, 대학생, 교사, 초중고생, 공무원, 다문화교육자 등 다양하다[6-8, 13-17]. 이들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보성향, 주관적 계층의식,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 외국인과의 상호작용 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13-15].

또한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Lim & Kim(2011년)의 연구에서 고려한 다문화인식 요인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이었으며[8], You(2017)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이해 관련 강좌의 수강경험과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 향상, 다문화가족, 다인종다민족에 대

한 수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다문화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 ‘이주노동자의 송환 지지’, ‘민족적 거리감’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한 연구도 있다[6].

이렇듯 기존 논문들은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다문화인식의 정도와 주관성에 집중하여 다문화인식을 유형화한 연구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가까운 미래의 다문화사회에 주류가 될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 유형화를 통해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결인 내용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3. 연구방법

3.1 Q 방법론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파악하고 유형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방법론은 일종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방법의 하나로써, 분석의 기본단위가 인간이 되며, 비슷한 반응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묶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유용성을 지닌 기법이다. Q방법론의 연구절차는 1단계 Q표본의 선정, 2단계 P표본의 선정, 3단계 Q표본의 분류, 그리고 4단계 자료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9].

3.2 Q 표본 선정(Q-Sampling)

Q표본은 연구주제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진술문(statement)을 의미하는데, 각 개인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든 주관적인 진술들의 총합으로서 한 문화 내에서 공유되는 느낌이나 의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진술문을 다문화인식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개발한 ‘국민다문화 수용성 척도(KMCI)’에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8개 하위범주에 포함된 총 35개의 문항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고 있다[12]. 이 외에 Jo(2014)의 연구[13]에서 사용한

다문화 인식에 대한 진술문 등 선행연구와 심층면접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총 80개의 문항으로 1차 진술문(Q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1차 진술문 중에서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항을 삭제, 통합하여 4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를 다문화 분야의 전문가인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30개의 대표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3 연구대상자(P표본) 선정

P표본은 진술문에 대해 응답한 연구대상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편의 표집으로 연구대상자를 추출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15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31명이며,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21명이며, 전공은 사회복지학과 8명, 간호학과 5명이며, 컴퓨터공학, 상담심리학, 회계학, 식품영양학, 컴퓨터공학, 국제관계학이 각 2명, 그리고 행정학, 제약공학, 화생공학, 무역학, 체육교육학, 미용학과가 각 1명이다.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은 없음이 19명, 있음이 12명으로 나타났다.

3.4 Q 표본의 분류 및 분석

Q 표본분류는 연구대상자가 최종 선정된 진술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다[9]. 본 연구에서는 강제분류방법에 따라 Q표본 분류를 하였는데, 먼저 P표본인 연구대상자가 분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30개의 진술문 카드를 읽으면서, 비동의, 중립, 동의를 3개 그룹으로 우선 분류하게 한 다음, 분류한 진술문을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아래의 Fig.1과 같은 배치가 되도록 하였다.

Q표본의 분류를 마친 후, 가장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 2개를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Q Method 2.11을 이용하여 주요인 분석법(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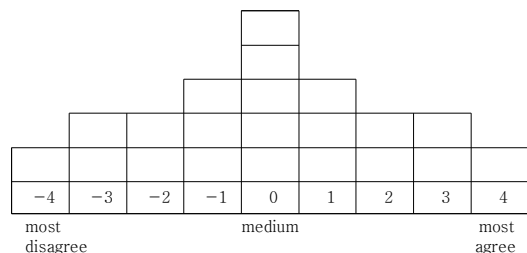


Fig. 1. Q classification table

4. 연구결과

4.1 Q유형의 구분 : 4개 유형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요인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네 유형의 총 설명량은 58%로, 1유형부터 각각 20%, 13%, 15%, 10% 이고,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1유형부터 11명, 3명, 4명, 4명으로, 전체 31명 중 9명은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에 속한 대상자 특징으로는 사회복지학 8명 중 2유형 1명과 미포함 2명을 제외한 5명은 모두 1유형에 포함되었다.

각 유형의 아이겐값(Eigen values)은 유형1은 11.0974, 유형2는 3.8060, 유형3은 2.6808, 유형4는 1.5771로 나타났다. 네 유형 간 상관관계는 유형1과 유형3이 $r=.50$, 유형2와 유형4가 $r=.52$ 로 나타났다.

4.2 유형별 특성 분석

Q방법을 이용해서 도출한 네 개의 유형별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진술문인데, 전체 30개 진술문의 요

인가는 Table 1과 같다.

각 유형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은 각 유형에서 표준점수(Z-Score)가 ± 1 이상인 진술문과 유의수준 .01이하에서 특정 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진술문을 토대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가장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응답한 이유도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4.2.1 제 1 유형 : 적극적 수용형

1유형이 표준점수 ± 1 이상의 수준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유형 1은 인종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데 강하게 동의하며,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주민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함에 동의한다. 한편,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 즉, 이주민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던가, 이주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는 어쩔 수 없다거나, 이주민 증가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거부감을 가진

Table 1. 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Q statement	type			
	1	2	3	4
1. It is good that our society is composed of various races, religions, and cultures.	3	1	-2	2
2. Government should provide immigrants with more active support.	1	-4	2	-2
3. The expansion of Korea's cultural diversity helps national competitiveness.	4	1	1	1
4. A multi-cultural society improves the national image.	1	0	-2	0
5. Our country is already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various races or ethnic groups live.	0	2	-4	3
6. Individual should be assessed by one's ability, regardless of race or country.	4	2	4	3
7. Immigrants who obtain the nationalities are Korean citizens with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me.	1	0	3	0
8. It is not desired that even naturalized immigrants be the leader of our society.	0	-1	-3	2
9. If migrants want it, they should be able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quickly.	0	-4	0	-4
10. The Korean people should be protected and supported first, rather than immigrants.	3	4	1	4
11. It is inevitable for immigrant workers to receive relatively low salaries or welfare benefits.	-4	1	-1	-3
12. The expansion of immigrant's employment would decrease the jobs for Korean people.	-1	0	-1	0
13. An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1	-1	2	2
14. There should be a limitation of accepting immigrant.	0	1	0	3
15. In order for immigrants to adjust well to our society, they must first learn Korean.	2	4	3	1
16. I admit the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but I personally feel rejected.	-1	-3	0	-1
17. I want to avoid being next to foreigners in everyday life such as restaurants on subways.	-3	-3	-3	-3
18. We do not need to first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or customs of immigrants.	-4	-3	-1	0
19. Immigrant's religious events or other performances such as music create a sense of rejection.	-3	0	-1	-4
20. To adapt to our country, immigrants must live up to our culture and customs.	0	3	2	-1
21. As immigrants increase in our country, various crimes will increase.	-2	-2	0	1
22. It is desired that immigrants live with themselves not mixing with us.	-3	-2	-2	-3
23. In Korea, immigrants are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skin color and country of origin.	2	0	4	1
24. I have little interest in multi-culturalism.	-1	-1	0	-1
25. In Korea, welfare and support for immigrants are fully provided..	-2	2	-4	-1
26. Illegal residents must return home.	-2	3	1	4
27. If immigrants live in neighborhood, I will actively approach and build relationships.	1	-1	-3	-2
28. I can accept immigrants as part of a family.	0	-2	0	0
29. I want to help immigrants who suffer from human rights abuses or unfair treatment.	2	0	1	-2
30.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understand and accept multi-culturalism.	3	3	3	0

다거나,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유형은 '적극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는데, 다문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1유형은 이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유형이다.

4.2.2 제 2 유형 : 자국민 우선형

2유형이 표준점수 ± 1 이상의 수준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유형 2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선적인 보호, 지원에 강하게 동의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응하려면 이주민이 먼저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 맞추어야 하고, 다문화 교육은 확대하되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주민에게 국적을 빨리 취득하게 하거나, 더 적극적인 지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들거나, 피한다거나,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가거나,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2유형은 '자국민 우선형'으로 명명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이주민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주민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적이며, 이주민이 우리사회에 동화되어야 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더 이상 이주민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4.2.3 합리적 수용형

3유형이 표준점수 ± 1 이상의 수준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Table 4와 같다. 유형 3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데 강하게 동의하며, 국적을 취득했으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관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돌려보내야 하며, 이주민이 피부색, 출신국,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한편,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이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가 충분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감은 없지만, 우리사회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로 구성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유형3은 '합리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는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잣대, 불충분한 지원 등 이주민의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

Table 2. statement with Type1 standardscore +1 and above

division	statement	standard score
agree	6. Individual should be assessed by one's ability, regardless of race or country.	1.785
	3. The expansion of Korea's cultural diversity helps national competitiveness.	1.361
	10. The Korean people should be protected and supported first, rather than immigrants.	1.297
	30.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understand and accept multi-culturalism.	1.256
disagree	1. It is good that our society is composed of various races, religions, and cultures.	1.178
	18. We do not need to first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or customs of immigrants.	-1.961
	11. It is inevitable for immigrant workers to receive relatively low salaries or welfare benefits.	-1.648
	22. I hope migrants live together.	-1.286
	19. Immigrant's religious events or other performances such as music create a sense of rejection.	-1.250
	17. I want to avoid being next to foreigners in everyday life such as restaurants on subways.	-1.105
	21. As immigrants increase in our country, various crimes will increase.	-1.064

Table 3. statement with Type2 standardscore +1 and above

division	statement	standard score
agree	10. The Korean people should be protected and supported first, rather than immigrants.	1.875
	15. In order for immigrants to adjust well to our society, they must first learn Korean.	1.684
	26. Illegal residents must return home.	1.464
	30.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understand and accept multi-culturalism.	1.350
	20. To adapt to our country, migrants must live up to our culture and customs.	1.084
disagree	9. If migrants want it, they should be able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quickly.	-1.761
	2. At the national level, more active migrants should be supported.	-1.721
	16. I admit the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but I personally feel rejected.	-1.350
	17. I want to avoid being next to foreigners in everyday life such as restaurants on subways.	-1.312
	18. We do not need to first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or customs of immigrants.	-1.312
	21. As immigrants increase in our country, various crimes will increase.	-1.205
	22. It is desired that immigrants live with themselves not mixing with us.	-1.053

고 있다. 또한 이주민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도 동의하는 유형이다.

4.2.4 제 4유형 : 제한적 수용형

4유형이 표준점수 +1 이상의 수준에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Table 5와 같다.

유형4는 이주민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우선적 보호 및 지원에 강하게 동의하며,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주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라고 인식하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한편, 이주민의 빠른 국적취득에는 반대한다. 그럼에도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상대적인 열악한 대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유형4는 '제한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주민에 대한 규제 등이 완화되어 이주민 비율이 증가될 경우 발상가능한 혼란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므로 이주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4.3 유형별 공통점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위 네 가지 유형별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네 유형은 공통적으로 이주민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특히 2유형과 4유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개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식은 1유형과 3유형에서 더 두드러진다. 나아가 이주민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고, 일상생활이나 문화생활에서의 다문화 인식은 네 유형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유형별 특성과 이러한 공통점을 종합해보면, 일상생활이나 문화적인 측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국적취득이나 복지의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부분에서는 인식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Table 4. statement with Type3 standardscore +1 and above

division	statement	standard score
agree	6. Individual should be assessed by one's ability, regardless of race or country.	1.937
	23. In Korea, immigrants are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skin color and country of origin.	1.745
	7. Immigrants who obtain the nationalities are Korean citizens with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me.	1.679
	30.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understand and accept multi-culturalism.	1.531
	15. In order for immigrants to adjust well to our society, they must first learn Korean.	1.376
disagree	5. Our country is already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various races or ethnic groups live.	-1.751
	25. In Korea, welfare and support for migrants are fully provided.	-1.745
	17. I want to avoid being next to foreigners in everyday life such as restaurants on subways.	-1.564

Table 5. statement with Type4 standardscore +1 and above

division	statement	standard score
agree	10. The Korean people should be protected and supported first, rather than immigrants.	1.806
	26. Illegal residents must return home.	1.662
	5. Our country is already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various races or ethnic groups live.	1.494
	14. There should be a limitation of accepting immigrants.	1.222
	6. Individual should be assessed by one's ability, regardless of race or country.	1.205
disagree	9. If migrants want it, they should be able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quickly.	-1.871
	19. Immigrant's religious events or other performances such as music create a sense of rejection.	-1.531
	11. It is inevitable for immigrant workers to receive relatively low salaries or welfare benefits.	-1.497
	22. It is desired that immigrants live with themselves not mixing with us.	-1.249
	17. I want to avoid being next to foreigners in everyday life such as restaurants on subways.	-1.23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은 기성세대보다 경험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관계형성에 능숙하다. 그 결과 다문화의 공존에 상당히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자국민 우선주의와 실질적인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문화의 거부감보다는 복지의 혜택이나 인종적 차별주의 등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민자들에게 갖는 시각이 온정주의적 시각인지, 위협적 시각 혹은 차별적 시각인지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닌 다민족과 다인종의 차별을 지양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민감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데, 이때 교육을 통한 다문화 접촉뿐 아니라 실제로 다문화가족들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환경이 필요하다. 대학은 관련 전공학과에서만 아니고 교양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봉사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과 접촉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의 특이한 부분은 이민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1유형에서조차도 이주민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1유형과 3유형은 인종 또는 국가, 민족 등과 상관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자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진술의 모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성적으로는 정당한 대우와 불평등 제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감성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 다소 편협한 민족주의적 의식의 잔재가 이민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시행하는 구조적 문제해결의 정책에 저항을 갖기도 하고 역차별의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관념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집단의 다문화 감수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16].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정책의 가치지향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혜택과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역차별의 공정성 논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250만명에 이르러, 2022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2050년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전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인이라는 전망이다[18]. 명실상부 절대 다문화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제반 정책도 이에 따라 맞춰 나아가야 하는 바, 기존의 미온적인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국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인 이주민들이 구조적 차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다문화 민감성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언뜻 보면,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1유형과 3유형으로 분류되어 다문화사회에 우호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자국민과는 차별을 둔다면 결국 통합적 절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요원하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바, 주인의식을 가진 주류민족으로서 소수민족의 배려가 아닌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의 자세를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Q방법론의 연구결과 내에서 대학생들의 성별이나 전공, 거주지역,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등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a). *3r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 Plan*
- [2] J-d. Lee & M-Y. Baik. (2012). 'Korean Specialities' and Multicultural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7(1), 335-359.
- [3] S. Y. Won & J. K. Park. (2009). Multiculturalism and Policy Orientation for Foreigners: A Focus on the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7(3), 201-224.
- [4] K. Will & K. Banting. (1995).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0(3).

[5] I. M. Young.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J. Y. You. (2017).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multicultural awarenes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7] Y. Choi. (2015). *A Study on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Korea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on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ir Level of Multicultural Recognition*.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unggi University.

[8] D. K. Lim. & C-S. Kim. (2011).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ntecedent Factors: Focusing on Social Distance, Image of Foreign Residents, and Qualifications for being a Korea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7(3), 5-34.

[9] S. E. Kim. (2016). *Q Methodology & Social Sciences*, GM Press. Seoul.

[10] W. Sthenson.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 Y. Jeon, W. Shin & O. Lee. (2019). The Perception of Marriage Immigration Women on their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s. *Social Welfare Policy*. 46(2), 117-141.

[12] L. S. Kim, J. S. Yoon, J. K. Lee, H. Y. Mun, M. J. Lee & K. M. Yang. (2018). *The 2018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3] J. Y. Cho. (2014). Subjectivity on Multicultural Recogni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4(1), 7-18.

[14] S. Kwon. (2009). A Study on the Receptiv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arding Multi-cultural Society.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19(1), 353-378.

[15] S. W. Yoon & S. D. Kim.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36(1), 91-117..

[16] K. S. Lee. (2011). A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of Social Studies Teacher in Gwangju Jeonnam Province. *Theory and Rese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3(1), 87-109.

[17] I. S. Jang & W. I. Lee. (2011).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Migrant Human Rights Poli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5(4), 177-199.

[1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b). *State of the Future*.

서 동 희(Dong-Hee Seo)

[정회원]



- 1995년 2월 : 상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1년 12월 :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사회정책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복지정책, 사회정책, 행정학
- E-Mail : dseokr@kkot.ac.kr

전 희 정(Hee-Jeong Jeon)

[정회원]



- 2007년 2월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 가족복지, 다문화

복지

· E-Mail : mynazareth@kkot.ac.kr